

# 세계도시동향

헤드라인뉴스	1	다계층 공유형 커뮤니티단지 모델로 주목	가나자와
산업·경제	3	학생이 상가 방문해 상인경험 배우는 프로그램 운영	바르셀로나
사회·복지	5	여성폭력 근절·남녀평등 도모 캠페인 진행	파리
도시교통	7	세그웨이,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단 규제안 제시	바르셀로나
도시계획·주택	9	소음지도 만들어 생활환경 저해 각종 소음 방지	뮌헨
	11	'사운더 시티' 정책으로 주거지역 교통소음에 대응	런던
	13	주택·학교 등 지역사회 시설 소음줄이기 조치 지원	뉴사우스웨일즈

## 다계층 공유형 커뮤니티단지 모델로 주목

‘셰어 가나자와’…장애인 취업지원시설, 고령자·학생용 주택 등으로 구성

일본 가나자와市 / 도시계획·주택

- 일본 가나자와(金沢)市에 조성된 ‘셰어 가나자와(Share 金沢)’ 주택단지가 최근 고령자를 위한 공유형 커뮤니티 단지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음.
- ‘셰어 가나자와’ 소개
  - 종교단체가 전후 전쟁고아를 돌봐주는 아동 양호시설로 시작해서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의 양호시설로 성장
  - 2014년 장애인 취업지원시설, 고령자 및 학생용 주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단지로 조성
- ‘셰어 가나자와’ 단지의 구성
  - 주거시설은 장애아동 입소시설, 고령자용 주택, 학생용 주택(아틀리에 포함) 등으로 구성
  - 복지시설은 노인 데이케어 서비스 시설, 생활요양시설, 방문요양시설, 아동발달지원센터 등으로 구성
  - 그 외에 외부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천연온천, 갤러리, 레스토랑, 매점 등의 시설을 구비
  - 개개 시설은 별채로 이루어져 있으며, 도로의 폭은 걷다가 마주칠 때 자연스럽게 인사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좁게 설계함.
- ‘셰어 가나자와’ 커뮤니티 활동
  - 학생용 주택의 임대료는 단지 내 어린이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월 30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조건에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책정
  - 건강한 고령자들이 다양한 서비스 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향후 몸이 약해졌을 때 데이케어 서비스와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.
  -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자연체험학교,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등을 실시



사진 ①: 장애아동이 마을에서 키우는 알파카를 돌봄  
 사진 ②: 예술을 하는 대학생의 작업실 공간과 자동차형 주택  
 사진 ③: 단지 모습  
 사진 ④: 마을의 카페 (마을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이 존재)

<http://share-kanazawa.com/>

<http://www.vill.sanagochi.lg.jp/docs/2016071400012/files/21.pdf>

<http://www.nga.gr.jp/ikkrwebBrowse/material/files/group/3/11.20161027shea.pdf>

이용원 통신원, yongwon\_lee@naver.com

# 산업·경제

## 학생이 상가 방문해 상인경험 배우는 프로그램 운영

스페인 바르셀로나市 / 산업·경제

- 스페인 바르셀로나市는 학생들에게 도시의 문화·사회·역사에 관한 배움의 장과 비평적이고 책임감 있는 소비문화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주변상가를 방문하여 상인들의 직업과 일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인 ‘상업과 학교’를 시행
  
- 주요 내용
  - 학생들이 가이드의 인솔 하에 지역상가를 방문해 상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배움.
    - 상인들은 상가의 공간을 개방하여 판매하는 상품을 설명
    - 판매 공간, 창고, 작업장의 공개 및 설명
    - 소속된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
    - 실습
  
  - 학생들이 지역상가에 대한 그림을 그림
    - 학생들의 그림 중 14점을 선정하여 상장을 수여
    - 선정된 그림으로 책갈피 50만 개를 제작하여 카탈루냐 지역의 전통적인 책의 날인 ‘성 조르디의 날’에 배포
  
  -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비판적이고 책임감 있는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
  
- 기타사항
  - 이 프로그램은 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와 공동체 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촉진하는 교육활동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음.
  - 2014년 바르셀로나시에서 개최되었던 제13회 국제교육도시연합(IAEC) 세계총회에서 소개됨.
  -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지역상점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, 상인들의 작

업을 배우며, 미래의 직업을 알 수 있는 도구로 그 효율성을 인정받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상점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.



지역상점을 방문해 상인들의 작업을 배우고 체험하는 학생들



학생들이 그린 지역 상점에 관한 그림으로 만든 책갈피

<http://ajuntament.barcelona.cat/comerciescoles/>

[http://ajuntament.barcelona.cat/comerc/sites/default/files/arxiu/pla\\_impuls\\_suport\\_definitiu.pdf](http://ajuntament.barcelona.cat/comerc/sites/default/files/arxiu/pla_impuls_suport_definitiu.pdf)

<http://ajuntament.barcelona.cat/comerc/es/actualidad/el-comercio-y-las-escuelas-celebra-su-decimo-a-niversario-con-un-excelente-balance-de>

<http://ajuntament.barcelona.cat/comerciescoles/es/el-comerc-i-las-escuelas-rep-el-segell-de-qualitat-per-les-seves-activitats-educatives/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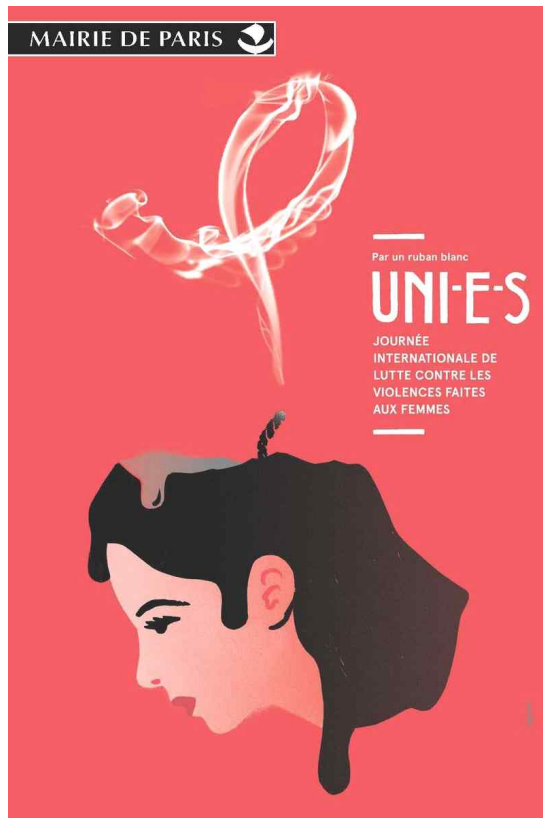
진광선 통신원, sunnyice@hanmail.net

## 사회·복지

### 여성폭력 근절·남녀평등 도모 캠페인 진행

프랑스 파리市 / 사회·복지

- 프랑스 파리市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‘국제 여성폭력 근절의 날’을 2016년 11월 개최하면서 여성폭력의 근절과 남녀평등을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들을 발표
- 구체적인 계획
  - 여성과 아동폭력에 관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 실험적으로 여성보호조치(Mesure d’accompagnement protege) 프로젝트를 시행
  - 여성폭력과 아동폭력을 동시에 근절하는 회합과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립



2016년 '국제 여성폭력 근절의 날' 포스터

- 여성폭력 근절과 남녀평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려고 이어달리기 행사 개최
- 거리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근절을 위해 성 추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추행의 책임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“희롱을 멈춰라, 다 함께 행동하자!” 캠페인을 진행
- 여성폭력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자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전시, 회의, 예술 프로젝트를 실시

- 장기계획

- 불법적인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 판매자를 겨냥한 임시 보호소 설립, 성 판매자의 적극적 보호 실시, 청년들을 대상으로 반 성매매 교육 제공
- “평등, 통합, 보호”의 기치 아래 2014년 설치된 여성 폭력 감시소 확장
- 법률적 측면에서 폭력을 당한 피해 여성과 아동을 보호할 대책 마련
-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전문기구인 ‘여성폭력 트라우마’, ‘일터에서의 여성폭력’, ‘가정에서의 여성폭력’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, 시민들이 이 기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
- 성 평등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 요원들을 양성하고 파리시의 중·고등학교에서 성 평등을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

<http://www.paris.fr/egalite-femmes-hommes>

[http://www.paris.fr/egalite-femmes-hommes#lutter-contre-les-violences-faites-aux-femmes\\_23](http://www.paris.fr/egalite-femmes-hommes#lutter-contre-les-violences-faites-aux-femmes_23)

배세진 통신원, prophet1013@gmail.com

# 도시교통

## 세그웨이, 전동 킷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단 규제안 제시

스페인 바르셀로나市 / 도시교통

- 스페인 바르셀로나市는 씨우닷 베야(Ciutat Vella) 지역의 관광구역과 산 마르띠(Sant Marti) 해안가에서 세그웨이, 휠체어, 롤러스케이터, 전동 킷보드 등의 VMP(Vehiculos de Movilidad Personal, 개인용 이동수단)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VMP와 보행자와의 공존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VMP의 속도, 무게, 탑승인원을 기준으로 도시 내 이용에 관한 규제안을 제시
- VMP의 유형별 구분
  - 타입 A: 작은 크기의 이동수단으로 시속 20km 이하의 솔로 휠, 전동 플랫폼 등
  - 타입 B: 자기 균형 이동수단으로 시속 30km, 무게 50kg 이하의 세그웨이나 전동 킷보드
  - 타입 C: 삼륜으로 용도에 따라 개인은 C0, 관광은 C1, 화물운송은 C2로 구분



자전거 도로에서 VMP로 이동하는 시민들

- 주요 내용
  - VMP별 이용이 가능한 도로
    - 타입 A는 자전거 도로, 일차선 도로, 공공 공원에서만 이용 가능
    - 타입 B와 타입 C2는 30구역(30-zone)의 차도에서 이용 가능



- 삼륜 C0는 자전거와 같은 규칙을 적용
- 삼륜 C1은 주요 도로를 침범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차도에서 이용 가능
- VMP별 최대 허용속도는 해당 도로에 표시되며, 보행자 도로와 공존하는 지역을 이용할 때 보행자를 존중해야 함.
- VMP 이용규정
  - 타입 A와 타입 B를 대여하는 모든 사람은 가이드를 동행해야 함.
  - VMP를 이용해 여행하는 그룹이 정해진 경로 없이 이동하는 경우 최대 2인 까지 허용되며,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경우 최대 6인까지 허용됨.
-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어떤 경우에도 공공장소에서 VMP를 운전할 수 없으며, 거의 모든 경우 헬멧의 착용을 의무화 함.
- VMP가 경제적 활동에 이용되는 경우 보험 가입은 필수
- 이 규제안을 위반할 때 적용할 제재안은 마련 중



관광 지구에서 세그웨이를 타고 진행되는 가이드 투어

<http://ajuntament.barcelona.cat/ecologiaurbana/es/noticia/propuesta-de-regulacizen-de-la-circulacizen-de-vehzculos-de-movilidad-personal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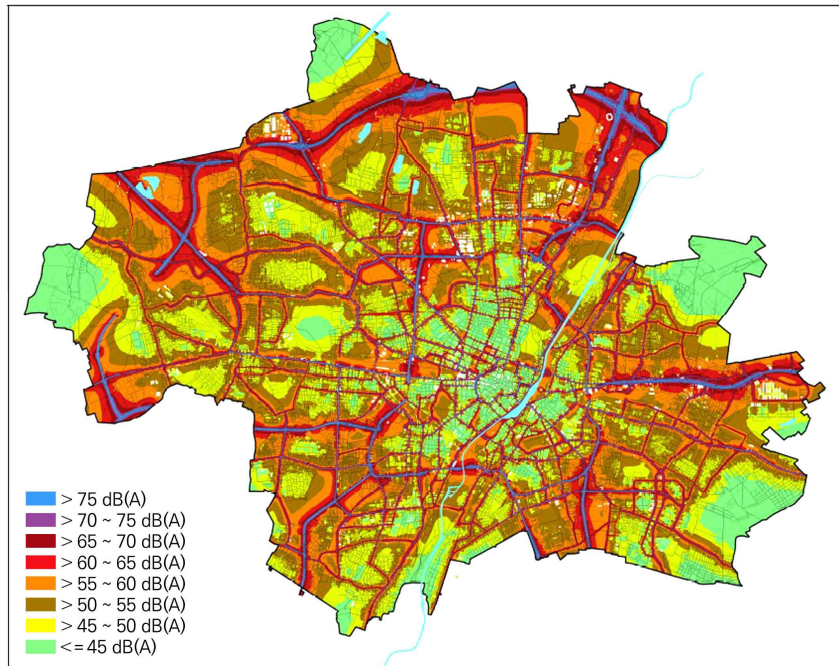
진광선 통신원, sunnyice@hanmail.net

# 도시계획·주택

## 소음지도 만들어 생활환경 저해 각종 소음 방지

독일 뮌헨市 / 도시계획·주택

- 독일 뮌헨市는 ‘EU의 생활환경 소음지침’과 ‘연방 소음방지법’에 따라 주거지역의 생활 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소음을 방지하고 줄이기 위해 5년 주기로 도로·철도·항공·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도를 조사해 ‘소음대비계획(Lärmaktionsplan)’ 수립
  
- 소음지도의 작성
  - 시는 310km<sup>2</sup>에 달하는 뮌헨 광역도시권 내의 약 600km의 도로망, 약 80km의 도시철도망 및 27개 산업지구에서 수집된 소음자료를 통해 소음의 원인과 정도를 분석하여 소음지도를 작성
  - 소음도는 낮(6시~18시), 저녁(18시~22시) 및 밤(22시~다음날 6시)으로 구분해 각각의 가중치를 두고 산정
  - 시는 소음자료를 토대로 주민참여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교통소음 저감 방안을 제시하는 ‘소음대비계획’을 정기적으로 작성
  - 2013년에 작성된 ‘소음대비계획’은 뮌헨의 교통소음 현황을 분석한 후 5가지 측면에서 소음저감 및 보호 프로그램을 제시
  
- ‘소음대비계획’의 주요 내용
  - 산업설비 관련 소음저감 조치
    - 소음을 유발하는 산업설비 등의 설치 허가를 강화
    - 관련 시설의 소음 인증제 도입 및 시의 감시와 관리를 강화
  
  - 교통 관련 소음저감 조치
    -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, 자전거, 보행로에 대한 지원
    - 주거지역을 우회하는 화물차 통행로 조성 및 화물차의 주거지역 통과 제한
    - 소음을 줄이기 위해 화물차의 적재량 제한
    - 주거지 인근에서 속도제한을 강화
    - 단계적인 저소음 차량 지원 정책 등



2013년 작성된 소음지도

- 건설 관련 소음저감 조치
  - 도시계획 단계부터 소음관리 방안을 마련
  - 공사현장에서 소음벽 등 다양한 소음방지 장치를 설치
- 버스, 노면전차, 도시철도 차량에 소음저감 장치 설치 등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
- 도심 및 주거지에 소음벽, 수림벽, 바퀴 통로, 소음방지 창문 등을 설치하는 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제시

<https://www.muenchen.de/rathaus/Stadtverwaltung/Referat-fuer-Gesundheit-und-Umwelt/Laerm/Laerm-minderungsplanung.html>

<https://www.muenchen.de/rathaus/Stadtverwaltung/Referat-fuer-Gesundheit-und-Umwelt/Laerm/Laerm-minderungsplanung/Laermkartierung.html>

<https://www.muenchen.de/rathaus/Stadtverwaltung/Referat-fuer-Gesundheit-und-Umwelt/Laerm/Laerm-minderungsplanung/Laermaktionsplanung.html>

선지원 통신원, jiwon.sun@gmail.com

## ‘사운더 시티’ 정책으로 주거지역 교통소음에 대응

영국 런던市 / 도시계획·주택

- 영국 런던市는 시의 중심가를 포함한 주거지역의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해 2004년 ‘사운더 시티(Sounder City)’ 정책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소음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도 활용
  
- 주요 내용
  - 조용한 차량(Quieter vehicle)
    - 차량의 증가 및 대형차, 노후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조용한 차량의 필요성 증가
    - 차량의 소음도 증명 및 소음 발생 테스트에 대한 기준 확립 필요
    - 차량의 소음을 줄이는 타이어 사용 권장
    - 차량의 소음도에 따른 세금 차등 정책 고려
    - 차량의 소음도 저감을 ‘대기환경 질 개선 전략’과 함께 고려
  
  - 교통체증 완화, 도로 공간의 재분배
    - 대중교통 이용, 걷기, 자전거 타기 운동 등의 장려를 통한 교통소음 감소
    - 도로변의 자전거길(Nearside Cycle Lane)을 통해 인도와 차도의 거리를 두어 소음도를 낮춤.
    - 버스전용차선을 통해 버스의 급제동이나 급출발을 줄이면 소음감소 효과가 있음.
  
  - ‘더 조용하고 부드러우며 안전한 주행’
    -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차량 혼잡 지역을 줄이면 도로의 차량흐름이 원활해져 소음이 줄어들.
    - 런던시는 정부가 ‘더 조용하고 부드러우며 안전한 주행’을 위한 캠페인을 하고, 이를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고
    -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증편하는 등의 노력 경주
    - 소음 경감 노력을 도로안전, 대기환경 질 향상, 에너지 절약 등의 이슈들과 함께 추진

- 더 나은 도로 정비 및 관리
  - 도로나 인도의 공사소음을 줄이기 위해 야간의 도로정비는 가급적 피함.
  - 도로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빨리 마친 시공업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사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유도
  
- 교통소음 감소를 위한 노면관리
  - 도심 내 교통소음 저감에 적합한 도로 마감재 사용
  
- 소음방지벽
  - 소음방지벽을 소음발생원으로부터 최대한 가까이 설치해 효과를 극대화
  - 시민의 보행과 안전, 시각적 쾌적함, 고전 건축물 보전 등을 고려하여 소음 방지벽 등 간접 소음제거 방법들의 효과를 조사
  
- 빌딩 방음
  -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2중창 등으로 시공
  
- 이웃, 도심, 공공장소, 걷기와 자전거 타기
  - 걷기 좋은 거리 조성과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차량이용 감소 유도
  - 런던시와 각 구청이 환경소음 감소를 위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
  - 지역개발 때 외부공간이 조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, 사람이 우선이 되는 거리 조성

<https://www.london.gov.uk/WHAT-WE-DO/environment/leadership-and-policy/keeping-noise-down>

[www.london.gov.uk/sites/default/files/mayors\\_noise\\_strategy.pdf](http://www.london.gov.uk/sites/default/files/mayors_noise_strategy.pdf)

<https://www.cityoflondon.gov.uk/business/environmental-health/environmental-protection/Pages/Disturbed-by-noise.aspx>

정기성 통신원, jkseong71147@gmail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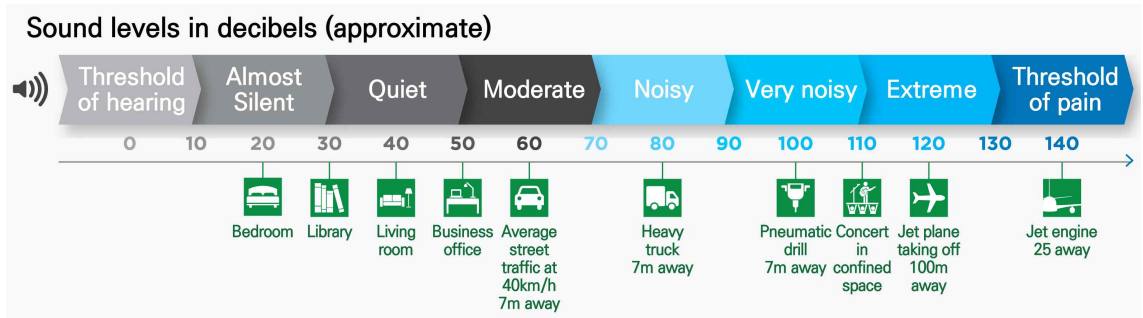
## 주택·학교 등 지역사회 시설 소음줄이기 조치 지원

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/ 도시계획·주택

-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관리를 위해 ‘도로소음정책(NSW Road Noise Policy)’을 수립하였으며, 이 정책에 포함된 ‘소음저감 프로그램(NSW Noise Abatement Program)’을 2016년 1월 개정하여 도로변에 있는 주택이나 학교, 병원, 교회 등 소음에 민감한 지역사회 시설을 대상으로 소음저감 조치를 지원

### - 주요 내용

- 소음저감 조치 시행기준
  - 신청주의에 따라 실행
  - 공사의 실행 가능성과 타당성에 기초하여 결정
  - 안전성, 유지·보수, 소음저감 효과, 비용 대비 편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  - 대략 10데시벨 정도의 소음감소 효과가 실질적으로 기대되는 지역



뉴사우스웨일즈주의 소음 기준

- 신청요건
  - 신청주의에 따라 실행되므로 해당 지역에 신청자가 있어야 하며, 한 명이 신청하더라도 신청자가 있는 지역이 대상지역으로 간주되어 인접 주택이나 시설들을 대상으로 집단적인 조치를 함.
  -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도로보수 공사나 재개발계획이 없는 지역
  - 소음저감 조치 기준은 ‘도로소음정책’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.

- 주간(오전 7시~오후 10시): 65데시벨
- 야간(오후 10시~오전 7시): 60데시벨
  
- 소음저감 조치 비용
  - 비용은 주택당 3만 호주달러(2천6백만 원)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신청자의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
  - 신청시점 기준으로 단기 거주자는 장기 거주자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, 7년 이상인 거주자는 면제됨.
  
- 소음저감 실적
  - 2009~2010 회계연도에는 57개의 건물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으며, 소요비용은 2백6십만 호주달러(23억 원)임.
  - 주정부는 2015년부터 기차길 주변의 주택과 건물에 대한 소음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, 향후 10년간 5천만 호주달러(435억 원)를 투자할 예정
  
- 소음저감 대상
  - 소음저감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현행 도로에 한해 적용
  - 신설이나 재개발되는 도로의 소음은 개발업자들의 책임
  - 신설되는 고속도로, 유료도로, 교차로에 대해서는 개발업자가 소음저감 대책을 설계에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함.

<http://www.rms.nsw.gov.au/about/environment/reducing-noise/noise-abatement-program.html>

<http://www.rms.nsw.gov.au/documents/about/forms/45064839-noise-abatement-program-application.pdf>

<http://www.rms.nsw.gov.au/documents/projects/factsheet-traffic-noise.pdf>

정용문 통신원, yong.jung@sydney.edu.au